



제19대 대통령선거 책자형 선거공보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과거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낡은 생각, 낡은 방식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나노기술, 유전자 공학 -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4차산업혁명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5년간 20개국에서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불과 21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만 만들어져 50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 초등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의 65%는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두려움입니다.

지금 준비할 때입니다.

교육혁명이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찾는 출발점입니다.

안철수의 교육혁명 공약 국민 다수가 맞다고 하십니다.

저 안철수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새 정부는 교육의 혁명적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안철수가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지금의 교육, 입시제도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정해진 답을 잘 외우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살아남기 힘듭니다.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인성을 배우고 타인과 협력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입니다.

미래 교육은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에게도 재교육 기회가 주어져야 100세 시대에

일할 수 있습니다.

교육혁명으로 대한민국은 미래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IT시대의 개척자 안철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갈

유일한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

확실하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능력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의사, 컴퓨터백신 개발자, 벤처기업 대표, 대학교수, 그리고 정치인
저는 다섯 번 직업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왜 편한 길 두고 사서 고생을 하나?”

평생 달동네에서 어려운 사람 치료해 오신 아버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에게 의술은 돈벌이가 아니라, 사람을 돌보고 고치는 소명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은 약자의 편에서 살아가는 삶,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겠다고 몇날며칠 밤새우는 제게 누군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할 수 있겠어?”

저는 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했고, 해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길을 저는 개척했습니다.
컴퓨터 백신 회사를 만들어 자리 잡기까지 직원들 월급날이 다가오면 속이 탔습니다.
힘든 고비를 넘기고 잘 나가는 회사를 떠나 유학길에 오를 때 사람들은 또 물었습니다.

“왜 사서 고생을 하나?”

교수가 되고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 대학 안에서 학과의 칸막이를 넘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융합의 길을 열었습니다. 가르치는 학생들의 눈물을 보고
절망하는 청춘들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결심했습니다.
정치에 나선 지 5년, 새로운 당을 창당하고 오랫동안 서로 싸우면서 공생해온
양당체제를 깨고 3당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 직업을 바꾼 저는 도전자입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길을 개척해낸 개척자입니다.
성과를 만들어내는 혁신가입니다.

저를 정치에 불러내주신 분들은 국민입니다.
정치를 배우는 게 아니라 바꾸라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제가 외롭고 두려운 광야에 홀로 섰을 때,
손 잡아주신 분들도 국민입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치,
더 나은 미래로 보답하겠습니다.



〈약력〉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전)
제19대, 20대 국회의원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전)
카이스트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안랩 이사회 의장(전)
해군 군의관 전역(대위)
서울대의대 의학박사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생각합시다

저 안철수,

낡은 과거의 틀 부숴버리고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의 시간이 오니 패권의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진보의 나라도, 보수의 나라도 아닙니다. 국민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 청년의 나라도, 노인의 나라도 아닙니다. 국민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 남자의 나라도, 여자의 나라도 아닙니다. 국민의 나라입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편 가르기 하지 않고, 국민 편에서 일할 사람 널리 찾아 쓰겠습니다.

오로지 실력 중심으로 드림팀을 만들겠습니다.

최고의 인재와 토론하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편가르기 끝장내야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분열주의, 패권주의로는 나라 바꿀 수 없습니다.

계파 패권주의는 말 잘 듣고, 줄 잘 서는 사람 씁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 널리 찾아 쓰겠습니다.

편가르기 정권이 아니라, 실력 위주 드림팀 만들겠습니다.

공직은 증명하는 자리이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최고의 인재와 토론하며 미래 준비하는,

젊은 대통령 되겠습니다.



우리는 10년 넘게 3만 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자리, 노후대책, 주택, 교육비의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집값, 전세값, 교육비에 노후대책도 오늘의 삶도 무너집니다.

하던 대로 하고, 가던 길만 가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대로 멈추면 미래는 없습니다. 편가르기 해서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나만 살자고, 우리 편만 살자고 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어야 합니다.

교육을 바꾸고, 재벌 검찰 기득권 구조를 바꾸고,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젊은이들에게도 어르신들에게도

일할 기회가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다섯 번 도전하고 성공한, 벤처정신 저 안철수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칸막이를 없애고 융합하고 협력해서 새로운 답을 찾았던 제가

미래로 가는 길을 열겠습니다.

아는 사람, 같은 편으로 가르지 않고, 실력 중심으로 드림팀 만들겠습니다.

젊은이들의 눈물에 새로운 길로 나섰던 제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 권력과 자본의 눈치 보지 않는 사람,

진짜 변화를 이끄는 사람, 안철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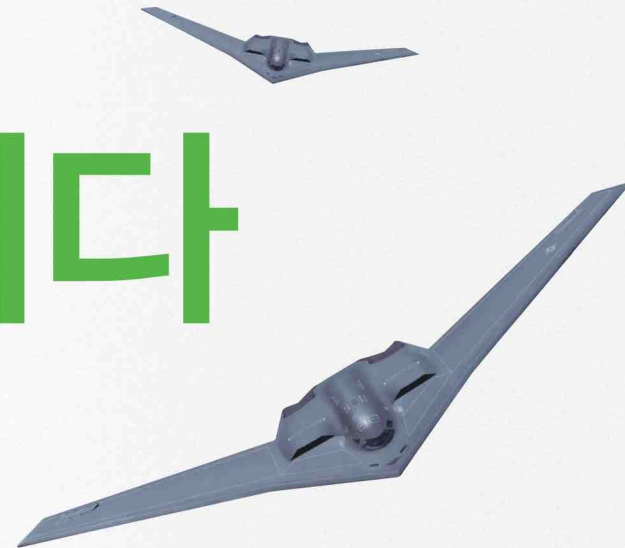
튼튼한 안보가 경제의 시작입니다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자강안보, 우리 스스로 국방안보의 힘을 키우자는 것이 저의 약속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국방비 증액 공약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내건 후보입니다.
다들 국방비 줄여서라도 다른 데 쓰자고 이야기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안보는 평화입니다.
안보는 경제입니다.
안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북한핵 문제,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스스로 힘을 키워야 우리 국민의 안전도,
국제적 신뢰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비 예산 좀더 쓰자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해군과 공군의 힘을 대폭 키워야 합니다. 사드가 배치됩니다.
그것만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다 막아낼 수 없습니다.
북한 핵위험을 억지할 수 있도록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고,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빨리 완료해야 합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북핵대응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첨단국방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세금 여기저기 샌다고 늘 걱정 많으신데,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국방청렴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제재와 함께 4자회담,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동결시켜야 합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군사적 도발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또 저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 청와대 안보실장부터
임명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새 대통령이 할 일, 안보부터 챙기는 것입니다.
튼튼한 안보가 경제의 시작입니다.

근본적 국가개혁이 필요합니다

견제되지 않는 대통령,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 받아야 합니다.
2018년 6월까지 반드시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정경유착을 완전히 뿌리 뽑고, 검찰과 재벌을 개혁해야 합니다.
눈치 볼 일 없는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부를 폐지하고 아이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혁명 반드시 하겠습니다.

자강 안보, 우리 스스로 국방안보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안보는 곧 평화입니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미세먼지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같은 가슴아프고 참혹한 일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건강에 해로운 물질들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수성가한 사람이 성공하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이고 자존심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힘이고, 사회적 관계의 원천입니다.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국가는 강한 사람, 강한 기업을 더 강하게 하기보다, 약한 사람, 약한 기업을
일으켜 세워 함께 전진할 때 더욱 강해집니다. 공정한 기회 보장되고 반칙이
없는 경제가 돼야,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개혁과제!

1.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2. 교육 · 과학기술 · 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준비
3.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 · 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4.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
5. 기득권 타파와 국민주권의 협치와 통합의 정치
6. 격차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7. 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 사회' 구현
8. 국민 모두를 위한 성평등 대한민국
9.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
10.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겸허한 마음과 엄숙한 각오로 19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담대한 도전에 나섭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갈 공정한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재래시장에서 만난, 반찬가게 어머니, 과일가게 아버지, “장사 안 돼 죽겠다” 하십니다.

그래도 새벽시장 다녀와 장사 채비하고, 오늘도 가게 문 여셨습니다.

자식들 위해 힘들고 고단해도, 이 악물고 장사하시는 겁니다.

그 분들 모두, 제 손 꼭 부여잡고, “제발 나라 좀 제대로 바꿔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 안철수,

전국에서 만난 국민들 기대와 희망,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평범한 국민들 힘 한데 모아 비범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께 도와달라고 손 내밀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도와드리겠다고 손 내밀겠습니다.

저 안철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대통령 되겠습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정치가 응답할 때입니다.

계파주의, 패권주의, 극복해야 합니다.

오직 국민이 이깁니다.

저 안철수가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